

## 인프라 투자 계획: 교통체증완화 정책

25년 전, 직행 차량들에게 도심의 혼잡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워싱턴 지역을 지나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워싱턴 D.C.의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정체현상이 워싱턴을 포함한 주변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통체증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 워싱턴 지역의 통근자들은 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80년대에 지역 정치가들이 상업적 목적이나 주거목적의 부동산 개발을 부추겨 일대에 개발 붐이 불었었다. 그러나 새로운 도로에 대한 필요성은 무시되었다. 주변 차량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는데 반해 기껏해야 도로 몇 개가 1990년대 말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비로서 교통계획 입안자들이 개발과 토지 이용 문제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모델은 교통계획 입안자들과 다른 이해관련자들에게 몇 가지 목적들을 달성하면서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달성하여야 할 목적들은 장·단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최대화하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재원마련 수단을 개발하고, 최대한의 정치적 지원을 확보하면서, 지역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 등이었다. 고려되고 있는 대안들은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안, 기존의 지하철 시스템을 개선 및 확장하여 신 개발 지역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안, 지역의 성장과 개발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안, 또는 기업들에게 근무시간 자유선택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하여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안 등이었다.



대안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기존 지하철 개선/확장
지역 개발 억제
근무시간 자유선택제도 권고